



여수 만성리 해수욕장서 더위 탈출 연일 전국적으로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2일 오후 여수 만성리 검은모래 해수욕장에 더위를 피해 찾아온 관광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스마트팜 탈락... '농도 전남' 충격

1800억 규모 농업분야 최대 국책사업 전북 김제·경북 상주로 전남도 "전국 제1의 작물 생산지 탈락 납득 안 돼...이의신청"

전남도가 1800억원대 규모의 농업분야 최대 국책사업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서 탈락했다. 전남도가 읍들이 야심 차게 추진해 온 국책사업 유지가 어그러지면서 농도(農都) 전남이 충격에 빠졌다. 전남도는 특히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냈고, 현재 장관 예정자인 이개호 국회의원도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지냈다는 점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는 "농림부 평가기준의 우선 순위 맞춰 착실히 준비했고, 평가 과정에서 지적·미흡 사항이 하나도 없었다. 너무 허탈하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사·도를 대상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대상지역을 공모해 평가를 거친 결과, 전북 김제와 경북 상주를 대상지로 선정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 규모화와 집적화, 청년창업, 기술혁신(R&D) 등 생산·교육·연구기능을 갖춘 첨단농업 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4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에 전남을 비롯해 경기·강원·충북·충남·제주 등 8개 도가 경쟁해 전북과 경북이 선정됐다. 농림부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추가 공모를 통해 2곳을 더 선정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지난 5월부터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전담 기획단(TF)을 만들고, 전종화 농림축산식품국장을 부부장으로 산-

학·연·관 추진단을 구성·운영해왔다. 전국에서 최초로 스마트농업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스마트농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제도·실천적 측면에서 꼼꼼히 준비해왔다.

사업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부지를 정부 기준(20ha)보다 2배 가까이 많은 39ha를 확보했고, 생산품목도 송이 토마토·엘스 멜론 등 기존 농업인과 경쟁하지 않는 품목을 선정, 사업을 반대했던 농민회 등의 협력을 끌어냈다. 또 지구 온난화에 대비해 국내에 90% 이상 수입하는 바나나를 수입대체 품목으로 육성하기로 하는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했으나 결국 탈락했다. 전남도는 특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 전남농업기술원, 시설원에 전문가 등과 수차례 자문회의를 거쳐 정부 평가에 대비해왔다는 점에서 '탈락'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남도는 농식품부 평가위원회의 심

사내용을 살펴보고, 이의신청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제시한 조건에 충족하고, 평가 과정에서도 지적·미흡 사항이 하나 없는 만족스러운 분위기였는데 심사에서 탈락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농업인과 전문가, 농민단체 등과 치밀하게 사업을 준비한 만큼 다시 공모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업경영인 전남도연합회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탈락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전국 제1의 농지 면적과 작물 생산지인 전남은 농업 점진화와 기술집약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지속 농업이 가능한 청년농업인 유입과 스마트 농업인 육성을 전남 농업의 성장 기틀을 만들어갈 중요한 사업"이라며 "전남이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제외된 이유를 밝히라"고 반발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고령화·도시화로 폭염 피해 증가 법률적·정책적 대비책 마련 시급

광주전남연구원

올들어 광주와 광양의 폭염 시작일이 50여 일 빨라지는 등 광주·전남에서도 5월 말부터 폭염이 시작하는 빈도가 점차 늘면서 21세기 말에는 광주·전남의 연평균 폭염일수가 적게는 27.1일, 많게는 73.1일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심화되는 폭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폭염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관련기사 3, 6면>

광주전남연구원 조승희 책임연구원은 2일 발표한 '광전 리더스 인포'에서 "폭염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 빈도 및 강도, 지속기간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라며 "고령화, 도시화 등으로 폭염에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광주·전남은 폭염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조 연구원은 우선 법률적·정책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폭염은 가장 심각한 자연재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에서 정하는 자연재난 범주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다. 폭염이 법적 재난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관련 법률 및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고, 단기적인 폭염 대책에서 벗어나 광주·전남의 폭염 발생 특성을 고려해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폭염 대응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연구원은 "건강, 농수축산, 에너지산업 등 모든 피해 유형을 포괄하는 위기관리 매뉴얼 제정이 필요하다"며 "기상자료뿐만 아니라 과거 피해사례, 폭염 민감도, 지역 내 폭염 대응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군·구 단위의 세부 폭염위험지도도 제작·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독거노인 냉방기 지원, 기로 인화 범위 확대, 민간 사업장의 폭염 피해 사전 예방 노력 등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밀집도, 접근성 등을 고려해 무더위 쉼터를 확대 설치, 농경지, 야외 건설현장 등에 임시 그늘막을 설치하는 등 지역 내 폭염대응 기반시설을 확충할 것도 조언했다.

이 밖에도 광주·전남을 폭염저감형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목터널 조성, 축사 리모델링 등 차별화된 폭염 대응 시범사업, 바람길, 폐열회수시설 마련 등 세심한 정책·사업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민주 당권 주자들 뜨거운 '호남 구애'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2일 광주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호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70~80% 안팎에 이르고,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호남 표심이 분선 승패를 가를 주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당권 주자들의 '호남 구애'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55)·김진표(71)·이해찬(66) 의원(기호순)은 이날 당대표 후보 간 첫 TV 토론회가 열린 광주를 일제히 방문했다. 이들은 오는 4일 광주(오전 11시 김대중컨벤션센터)와 전남(오후 1시 담양문화회관)에서 잇따라 열리는 민주당 광주·전남 개편대회를 앞두고 이

송영길·김진표·이해찬 후보
 광주·전남 방문 지지 호소

지역 곳곳을 누빌 예정이다. 송영길 후보는 이날 "저는 고향 출신으로 광주에서 초중고를 나와 고3 시절 5·18 민주화운동을 겪었다"며 "최근까지 국방경계협력위원장으로 문재인 대통령 직근거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력을 뒷받

쳤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후보도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고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유능한 경제당 대표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후보는 "저는 5·18 유공자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시고 정치를 배웠다"며 "당 내부를 관리하는 리더십으로 총선 승리와 문재인 정부 성공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SWITCH TO EQ

Introducing GLC 350 e 4MATIC

#switchtoEQ

GLC 350 e 4MATIC 출시!
 탁월한 퍼포먼스와 놀라운 연비를
 동시에 실현한 메르세데스-벤츠의 e-Mobility.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에서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4-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초읍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어룡대로 603(초읍동)
 수암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방울대로 520(수암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GLC 350 e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2,120kg, 자중: 7t), 복합회합유모드 연비 (CS연비): 9.7km/ℓ (도시연비: 9.1km/ℓ, 고속도로연비: 10.6km/ℓ),
 복합전기모드 연비 (CD연비): 2.3km/kWh (도시연비: 2.0km/kWh, 고속도로연비: 2.6km/kWh), 복합CO₂ 배출량: 92g/km, 1회 충전 주행거리: 15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를 이미지는 국내 시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